요령

자녀의 의사소통 방법 및 이유 이해하기

의사소통은 말 이상의 것이 사용되는 사람 사이의 능동적 협력입니다. 우리는 말, 몸짓, 만지기, 얼굴표정 등을 사용하여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다른 사람의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이가 여러분을 식기장으로 데려가면 여러분은 아이가 쿠키를 원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며 왜 의사소통을 하는지 알면, 자녀의 강점을 계발하는 한편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의사소통 방법

몸짓(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손 뻗기 등), 말, 얼굴표정 등을 사용하는 것처럼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앞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자녀가 쓸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의 예입니다:

- 물체, 행위, 사람 또는 그림을 쳐다보거나, 손을 뻗거나,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 다른 사람을 어떤 물체 쪽으로 끌어당기기
- 어떤 물체로 다가가기
- 얼굴표정
- 눈맞추기
- 소리 또는 동작 흉내내기
- 말 사용하기
- 소리지르기 또는 화내기
- 도망가기, 때리기 또는 물기 등의 행동
- 수신호 사용하기(수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 가지 이유로 똑같은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흥분하거나 어떤 음식을 거부할 때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아동의 의사소통 이유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의사소통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어떤 물건 또는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
- 편안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 가르쳐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 항의하기 위해(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표시)
- 인사하기 위해
- 자신의 관심 대상을 알리기 위해
- 기분을 표현하기 위해

자녀가 말을 이해하도록 돕기

아이들의 첫 번째 학습은 보기, 듣기, 만지기, 맛보기, 냄새맡기 등이 수반되는 체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말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말을 이해합니다. 아이에게 똑 같은 상황과 관련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해주면 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물건의 이름을 말하면 그것을 쳐다보거나 그쪽을 향해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유' 하고 말하면 우유병을 쳐다봅니다. 우유병을 '우유'라는 말과 연관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말에 대한 이해를 나타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아이가 여러분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아이를 마주보고 이야기한다.
- 말을 할 때 몸짓, 물건 또는 그림을 사용한다.
(예: 의자를 툭툭 치면서 "앉아" 하고 말한다.)
- 아이가 하고 있는 일이나 관심을 보이는 것의 이름을 말한다.
(예: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제시카가 그림을 그리는구나" 하고 말한다.)
- 연관된 말을 해준다.
(예: 아이가 블록 쌓기를 할 때 "위로, 위로" 하고 말한다.)
- 일정한 말을 몇 가지 사용하여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예: 아이가–또는 아이와 함께– 포테이토 헤드 인형에 눈을 붙일 때 "눈 붙이기" 하고 말한다.)
- 중요한 말을 강조한다.
(예: "주스 마시고 싶어.")
- 주변에 뭐가 있는지 말해준다.
(예: 아이가 지나가는 버스를 쳐다볼 때 "버스" 하고 말한다.)

자녀의 의사소통 돕기

아이가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말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스스로 흉내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말하는 방법)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부모 및 자녀 모두에게 힘겨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아이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 대답할 시간을 준다 – 묻고 기다린다.
- 아이의 말과 행동을 똑같이 따라한다.
- 아이가 말하려는 것을 해석한다.

(예: 아이가 어떤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가리키며

"오, 오" 하고 말하면 "떨어진다" 하고 말한다.)

- 마지막 단어를 하나 뺀 문장을 말해주고 아이가 문장을 완성하게 한다.

(예: "버스 바퀴가 빙글빙글 _____")

- 아이의 의사소통 시도에 대응한다 – 아이가 말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 선택권을 준다.

(예: "우유 마실래, 주스 마실래?")

- 아이가 하는 말에 다른 말을 덧붙인다.

(예: 아이가 "개" 하고 말하면 "큰 개" 하고 말한다.)